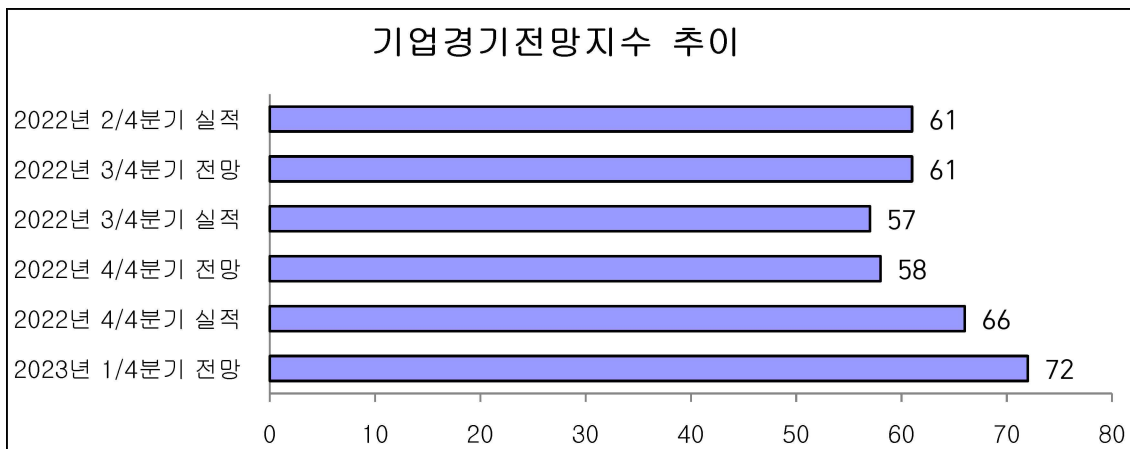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제사업부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3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72' 로 집계됐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6' 포인트 증가하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2년 2/4분기 실적	2022년 3/4분기 전망	2022년 3/4분기 실적	2022년 4/4분기 전망	2022년 4/4분기 실적	2023년 1/4분기 전망
체감경기	63	63	42	50	48	63
매출액	63	70	42	50	59	63
영업이익	41	48	46	50	52	63
설비투자	70	70	81	77	89	85
자금조달 여건	74	67	X	X	X	X
공급망 안정성	48	41	62	58	67	70
공장가동 여건	67	67	65	65	81	85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63, 매출액 63, 영업이익 63, 설비투자 85, 공급망 안정성 70, 사업장·공장 가동 여건 65 로 나타나 설비투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 가운데, 1.5% 미만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 이상 2.0% 미만(33.3%), 2.0% 이상(3.7%)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62.9%가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1.1%는 목표치 달성·근접, 목표치 초과는 25.9%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高물가-원자재가 지속’ (3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내수경기 침체’ (22.2%), ‘수출 둔화 장기화’ (11.0%), ‘원부자재 수급 불안’ (9.3%), ‘고환율 장기화’ (7.4%), ‘고금리 지속’ (7.4%), ‘지정학적 리스크’ (3.7%), ‘노사갈등’ (3.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 2022. 12. 1 ~ 12. 14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BSI 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